東亞日報 夕刊 十二月一日(日)

社說 文盲退治의 緊急

一

[illegible]

二

[illegible]

三

[illegible]

北平과 互相呼應
天津市도 自治宣言?
宋氏의 第二次强硬通電

[天津三十日發聯合] [illegible]

北平自治委員會 一日宣言發表?

[北平三十日發聯合] [illegible]

鐵道接收着手

[天津三十日發電通] [illegible]

汎米航空代表 厦門政廳과 締約

[illegible]

二億弗의 對米借款
王正廷氏、米副大統領에게 提議
日本側에 諒解要求

[上海三十日發電通] [illegible]

一、借款總額 米貨二億弗

一、用途 幣制改革、鐵道敷設其他經濟的建設을目的으로함

一、軍費에 流用치아니함

一、擔保 鐵道收入及關稅收入으로써 充當함

[illegible]

米中借款說과 駐在官憲의 意嚮

[上海卅日發電通] [illegible]

永野全權伯林到着

[伯林三十日發電通] [illegible]

變轉無常의 北中情勢

[illegible]

石油禁輸의 對策
伊國閣議愼重討議
燃料油自給策을 研究

[로마三十日發電通] [illegible]

重大決定事項

[로마三十日發電通] [illegible]

"條約海軍"確立의 絶對必要를 强調
米스長官의 年次報告

[워싱톤一日發聯合] [illegible]

米國軍縮代表 聲明書發表

[華府三十日發聯合] [illegible]

希臘新內閣 純然한 超黨派的

[아테네三十日發電通] [illegible]

來議會의 大難關
再開劈頭解散必至?
政民兩黨態度注目處

[東京電話聯合] [illegible]

▲政友會

[illegible]

▲民政黨

[illegible]

公債總額 百億突破

[東京電話聯合] [illegible]

何軍政部長突然 極秘密裡에 北上
山東主席과 重要協議

[南京一日發至急聯合] [illegible]

有吉、蔣兩氏 再會見?

[上海三十日發電通] [illegible]

張群氏의 懇望을 磯谷武官一蹴

[上海三十日發電通] [illegible]

英米兩大使 秦市長訪問

[北平三十日發聯合] [illegible]

二省二市各首腦 連袂辭職

[北平三十日發至急聯合] [illegible]

二萬의 共産軍 北進?

[天津三十日發電通] [illegible]

軍縮本會議 英國全權決定

[倫敦三十日發電通] [illegible]

塊、洪兩政府間에 軍事協定成立

[새京三十日發聯合] [illegible]

伊大使佛首相과 重要會見 石油斷交問題로

[파리三十日發聯合] [illegible]

도히마라族突然 伊軍을 襲擊 伊兵八十六名戰死

[아디스아베바三十日發電通] [illegible]

日曜市場氣配

▲株式 [illegible]

▲期米 [illegible]

米日爲替市況

[東京三十日發聯合]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今日本紙四面

最高級美粧用
香、質이가장優秀하고 거품이잘일읍니다
コリア石鹸 코리아비누
三好白粉 三好水白粉 三好化粧水 三好ペルツ水 三好香水 三好頰紅 三好香油 三好ポマード 三好口紅 三好眉墨 파라미온트石鹸
三好化粧品株式會社

團成社 青春의 十字路
第一劇場 俠艶錄 鈴木澄子大熱演 알쓰 競爭 唄祭三度笠
優美館 華麗한人生 黃金飛脚 若闘五十年
東洋劇場 拳鬪카그니 野談大會

異域營口移住農民 非脫穀同盟코 抗爭

貧農게에農經費十五萬圓要求

東亞勸業公司의處事

總督府에陳情 領事도調停

生途漠然한千餘戶農民

奉天本營業所의 人件費도農民負擔

水利費도約倍以上

◇오늘부터 섯달!

白晝、時計舖에侵入 少女脅迫、金品奪去

主人없는틈에 白衣입은怪漢

唐珠洞萬寶堂에突現

中佛航空開始 歐亞七日連絡

四日에參拜를通牒 某校長에게即答要求

廿八日、平南學務課長으로부터

宣教師會에서徹夜討議

歲末同情週間 十一日부터一주간

在山海關朝鮮人 親睦會를創立

오양에田今博士 一日午後三時發歸國

인求하려다 電車에轢死

◇朝鮮豫選에優勝한普專력비림

犯罪者十八萬餘 昨年보다七千名增加

작년중 조선안에서 생긴것

羅津에大火 今曉、四棟을全燒

海州橫領犯 京城에潛跡

蘇、飛機墜落

【모스크바三十일발전통】

비력의普專無敵 大阪에가서이음을專法

普專이(선)이法專

山岳俱樂部 發起準備會는六日

中央體研의 今年審查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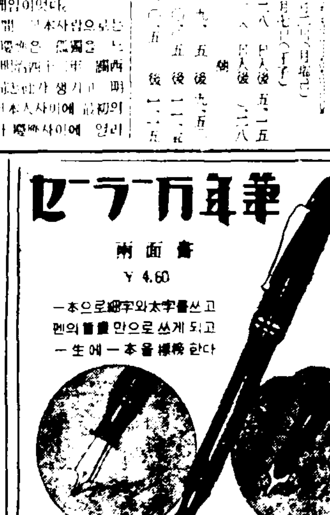
柔道有段者會 過經白紅戰合聯

비력이하는進躍 革沿과그精神

(六) 全有亮

★그날그날★

天氣豫報



特約 セーラー万年筆 楠商店

◎建築家의福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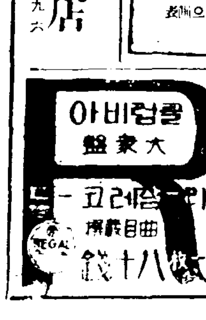
鍾紡鐵原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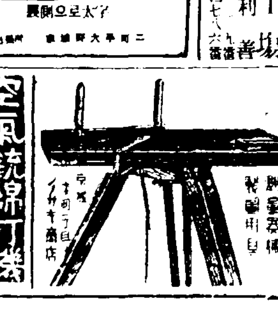
寄宿舍女舍監採用

鐵鋼商 市來商店

고무신은거북선

顧客各位께案內
來四日午前十時부터午後五時까지의間에新行舍에移轉하옵기를바라玆에謹告하나이다
株式會社 朝鮮貯蓄銀行





朝鮮劇場
龍宮이야기

끝을아지못하는

無線電話의進步

將來는國際會議를電話로하고 明年올림픽情況도當日에들어 世界는漸次좁아지다

一九三六

만흔時間

또한가지 英國等의

世界最强의마그네트

新春文藝懸賞募集

應募期限十二月十五日

特別論文寄稿歡迎

1、文化投資와新方面의具體案

2、農村夜學의育成策

3、女性은職場이냐家庭이냐

短篇小說 一篇 賞金五十圓

戲曲 多幕物도歡迎 一篇 賞金五十圓

씨나리오 (約八卷) 一篇 賞金五十圓

實話 九死一生記 若干篇 賞金各二十圓

漫文 취와人生 若干篇 賞金各二十圓 (長短은二百字原稿紙五十枚內外)

詩歌 新詩·時調·民謠·漢詩 各二篇 賞金各五圓

兒童物
童話 二篇 賞金各十圓
童謠 三篇 賞金 甲一人五圓 乙二人各三圓
兒童自由畵·習字·作文 各三人 賞金甲一人五圓 乙二人各三圓

注意

規定

新刊紹介 ▲批判 ▲熱血青年論 ▲鷄の研究

東亞日報社學藝部

京城 有恒社藥品部神藥半額提供

世上에事實보다도强한것은업다、有恒社藥品部神藥의偉力은天下가周知하는事實이다、三期의肺病이全治하엿다、惡性痼疾의淋疾帶下症이斷根하엿다、六〇六으로不治한末期의梅毒도나엇다、慢性의胃腸病도完快하엿다、永年苦痛하든기침담喘息病이나엇다、精力이旺盛하여젓다、는等等熱熱한絶讚과起死回生의體驗報告가山積의盛況!! 體驗者의歡喜와感激이全鮮到處에湧起!! 이는有恒社藥品部特効神藥의偉効를保證하는산事實이다、不幸히도아즉有恒社藥品部特効神藥의偉効를몰라서苦痛中에잇는患者에게偉大한藥効를宣傳普及키爲하야採算를度外視하고犧牲的으로左記各藥品을定價의半額(五割引)에提供하오니服藥의好機會를勿失하시고學理와實驗의結果效果가偉大한本社神藥으로써全快의光明을把握하시라!!

유명한독일コッホ박사가세계적발명한 결핵균엔
肺病全治藥 유―고―루
약갑 삼기용이십원、이기용십원、초기용오원、송료선금무료 대금인환삼십오전

肺病全快者續出
八個年이나된肺病이完治 金化七
積年肺病으로苦心타가一劑로根治 安鼎熙
이외에도各病에感謝狀이만사오나 紙面關係로揭載치못하야 省略함

六〇六호이상뭇는독일ホフマン박사가발견한매독균엔
梅毒特効藥 日東도구도루丸
약갑 악성용九원、완고만성용五원、급성용三원

독일ナイセル박사가발명한임질균엔
淋疾斷根靈藥 日東淋藥
약갑 악성용삼기용九원、만성이기용五원、경증용三원、송료 선금무료 인환대금 삼십오전

奇蹟的靈效잇는 보약에로수
主治效能 補血强壯、神經衰弱、貧血、重病後의衰弱
感謝狀의一例 咸南新浦邑 金桂鳳

기침、담、천식에 세기도―루
약갑 완고용十五圓、중증용八圓、경증용三圓五十錢

滯症胃腸病에 마구다―
약갑 악성용五원、완고용三원、중증용二원、경증용一원
金振玉
李道根

註文方法 註文은病名을記入하야藥價를指定하시면藥品을特撰하야送料는負擔急送하겟슴니다 萬一前金으로註文하시지못하실境遇에는代金引換으로註文하시옵 但送料는實費를加算하나이다

京城局私書函第八十五號
總發賣元 有恒社藥品部
市內小賣部 苑南洞一一九
電話光化門一四三〇番·振替京城七九五六番

收穫皆無한土地에 例年같은作料를要求

全北旱災地에小作爭議頻發

道에선地主彈壓方針

【전주】 금년여름의 한재로인[illegible] 하야 크게 해를입은 전북도에서는 [illegible] 추수에는 수확기를 당하야 지주와 [illegible] 무리한 작조(作租)로 쟁의가 [illegible] 발하고 있다하나 이제 [illegible] 들어보면 한해로 수확이 [illegible] 거나 七할이상의 대감수를 [illegible] 지방에서 지주가 예년과같은 소작료를 강요하고 또 감수된 비율에 관하야도 지주나 사음의 의견이 실제와 상위되므로 소작인들이 이를 억울히 생각하는데서 생기는 [illegible]

批峴高等農學院 開講式을擧行

【비현】 [illegible] 피폐한 농촌을 갱생시키기 위하야 중견인물을 양성할 목적으로 [illegible] 批峴高等農學院을 [illegible] 지난三十일 하오 [illegible] 개강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는데 [illegible] 무사히 폐회한후 이어서 간담회로 식을 마치었다 한다。

[illegible] 석패하였다。 예전에비하야 지방 단체가 사정에 따라 경인에 출연치못한것을 [illegible] 유감히 생각한다고 하며 당일은 입추의 여지가없는 대만원의 성황으로 종료하였다고 한다。

鎭南浦大火災는 保險放火로判明

四人이한패가되여 二次만에燒盡을"成功"

【진남포】 기보=지난二十九일 [illegible] 세멘트[illegible] 시내명치정에 [illegible] 나서 八동十四호가 전소되고 [illegible] 남포서 사법계에서는 원인이 [illegible] 중이던바 계속엄중히 조사중이던 [illegible] 화재보험회사(大阪火災保險會社)대리 [illegible] 부화한 일인임이 [illegible] 어가입을 인지하고 엄중히 취조 중이라는바 [illegible]

府升格前提로 邑區域擴張

龍塘浦를 海州港으로改稱

隣接面五個里編入

【해주】 부(府)로 승격(昇格)[illegible] 를 목표로하는 해주읍(海州邑)에 [illegible] 와 서계리(西溪里) 서변면(西邊面) [illegible] 의 동양리 [illegible] 와 석산 [illegible] 의 면적은 二방여리로 인구는 四만여를 산할터이며 동시에 용당리의 용당포(龍塘浦)를 해주항(海州港)으로 개칭한다고 한다。

尙州毛絲編物講習生一同 (本報支局後援)

開城演劇競演에 綠星社優勝

【개성】 고려청년회학예부(高麗靑年會學藝部) 주최와 본보 개성지국 후원으로 지난 三十일 동회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조선 연극경연대회(全鮮演劇競演大會)는 예정과같이 동일 오후七시반 [illegible] 고한승(高漢承) [illegible] 심사하에 [illegible] 녹성사(綠星社) [illegible] 일등으로 [illegible]

元山交通量 土木管區서調査

【원산】 원산하는 원산 [illegible] 의 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하야 지난 二十七일 오전七시에서 오후六시까지 원산토목관구(元山土木管區)에서 조사한주자에의하면 경원도로가 [illegible] 사람이 三六九九명 우마차(사람까지)一九○ 자전거 一二四 [illegible] 마차四、四 승합자동차一、총계四七○五 [illegible] 이란 놀라운 수자를 보인다는바

東海岸肝油類를 特産業으로指定

성가와 품질향상을 목표로

一般當業者企待莫大

【원산】 원산을 중심으로한 동해안에서 [illegible] 유(肝油)는 명태의 간으로 만드는 [illegible] 가 요지음 새로이 함경남도의 특산품에 지정되어 [illegible] 성가와 품질의 [illegible] 여다 즉 [illegible] 종래와같이 [illegible] 에걸려 조제난매(粗製亂賣)될 염려가 없게되고 [illegible] 에 의하야 제조、판매 [illegible] 모두 도지사의 인가를 [illegible] 는 서래를 할수없게되므로 [illegible]

살길찾아왔다가 昇降口서落死

【군산】 최근 [illegible] 에는 각지농촌 에서 수천명의 노동자가 운집하 [illegible]

興南朝窒會社 定平에도進出?

【흥남】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에서는 작년이래 함흥평야(咸興平野) 토지 백五十여만평을 매수하야 서쪽질소(石灰窒素)와 화약(火藥)공장의 대규모공장을 건설중이라함은 [illegible] 이 어디라 이제 조사한바에 의하면 조선회사는 다시 어떤 계획하에 정평군 [illegible] 에 신진출을 하려 한다는데 이미 [illegible] 일대 토지에 반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동시 그게 주목중이라한다。

여것으로보아서도 약진[illegible] 마나 비약적발전을하고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수있다고한다。

臨檢七百餘戶에 違反一百餘件

【인천】 기보=인천시내에 부정매매가 성행하야 민중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인천서(仁川署)에서는 엄중취체를 하리라 한다함은 기보한바와 같거니와 인천서에서는 지난 二十九일 부내 전반에 [illegible] 一제 취체를 한 결과 ▲臨檢戶數七三四▲違反[illegible] 으로 그중에는 [illegible] 에 부정행위도 적지 안다는바 이것으로 얼마만한 부정매매가 성행하는가를 알수있다 하며 따라서 민중의 피해가 막대한것을 알수있다 한다。

脫走한竊盜犯 格鬪끝에被逮

【보은】 천안군 천안읍내리(天安邑內里)[illegible] 절도범(竊盜犯)으로 온양경찰(溫陽警察署)에 인치되어 취조를 받든중 [illegible] 도망하였는데 [illegible] 으로 수배를 하는중 [illegible] 에 의하면 전기 범인은 [illegible] 노상에서 [illegible] 에 체포된것이라고한다。

(高川郡南面[illegible]) 김봉율(金奉律)[illegible] 의 우처는 부내 [illegible] 당하고 소는 [illegible] 가 파손을 [illegible] 대 전기 김봉율은 [illegible] 당하고 [illegible] 이 중상이 되었다 한다。

元山鐵道事務所 乘務員實務紹介

【원산】 원산철도사무소(元山鐵道事務所)관내 [illegible] 실무소개를 十二월六、七、九、十의 四일간 [illegible] 에게 시승(試乘)시키고 다음과같이 행한다고한다。

六日 元山咸興間五一二號列車

七日 新北靑咸興間五○二號列車

九日 福溪元山間五一一號列車

十日 杆城元山間七○二號列車

消息

◇尹字植氏(和信平壤支店長) 就任人事次 去二十七日 本社平壤支來訪

◇印永百氏(和信平壤支店營業部長) 同上

◇朱命主氏(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西鮮支社長) 就任人事次 去廿八日本社平壤支局來訪

◇金炳洙氏(慶北[illegible]) 去二十五日 金堤郡[illegible] 第四發行[illegible]

[illegible]

溫井院 平山地方 에는 [illegible] 가 불탈길 이 [illegible] 하야 近處 山에는 집단 대로 [illegible]

長連 九月、西邑、下國筆洞 金福에는 各其 家族이이러났다고。

延安 敎師生活 二十年의 經安公普校長 黑木彌太郞(四七)氏는지난 二十日에 長逝。

幻兒를路上에서 强制로마끼고逃走

정체모를 여자의 용감한소위

元山署에서犯人을嚴探

【원산】 지난二十一일 오후四시경에 부내 와우리(臥牛里)一五三 윤대오(尹[illegible])의 [illegible] 어디로인지 다라나버리고말었다。 전기 조길녀는 할수없이 그 아이를 다리고 원산경찰서에 가서 계출하였으므로 방금 경찰서에서 보호중이라고 한다。

松禾小作爭議 圓滿히解決

【송화】 기보=송화군 [illegible] 의 소작쟁의는 [illegible] 소작인 사음간에 대립되어 [illegible] 바이니와 지난 二十六일에 해결되었다는바 [illegible] 의 [illegible] 다。

自己名義를奇貨로 鑛業權賣却

남의 광산을 만원에팔어

咸興法院一年半求刑

【함흥】 황금광 시대가 빚어내는 가지가지의 희비극이 종종 세상사람으로하여금 이목을 놀라게하거니와 광업권에 자기명의로 등록되어있는것을 기화로 이를 매각하다가 법망에걸려 [illegible] 安邊郡鶴城面[illegible] 은 경성부 [illegible] 소유광산인 [illegible] 금광 [illegible]

機關車牛車衝突

【인천】 지난二十九일 오전八시경 인천역 구내 화물(貨物)홈 [illegible] 에서 [illegible] 牛車와 기관차와 충돌 [illegible] 부천군 남동면 [illegible] 村[illegible] 를 [illegible] 松本某가 하도 무엇이라고 [illegible] 니끼나 [illegible] 다가 被打 重傷。

라디오

十二月一日(日)

▼零時五分 音樂外

(一)[illegible](二)양산타령(三)[illegible] 蘇元俊、韓仁學、[illegible]

▼零時二十分 레코-드音樂

▼一時 名作이야기 「[illegible]」(二) [illegible] 原作

▼六時 兒童日曜新聞

▼六時二十分 心田開發講話

▼七時三十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illegible]

▼八時 流行歌 [illegible]

(三)流浪의[illegible]

(五)[illegible] (七)[illegible]

▼八時三十分 古談 [illegible]

▼九時 合唱과管弦樂 [illegible]

▼十時 滿洲로부터 [illegible]

二放 [illegible]

▼午後十時十五分 [illegible]

二放 朝鮮總督府[illegible] 井上 淸

十二月二日(月)

▼零時三十分 朝鮮民謠 [illegible]

▼零時四十五分 滿洲로부터 [illegible]

▼午後零時五分 俗曲 [illegible]

▼三時 [illegible]

▼六時 [illegible]

▼六時二十五分 [illegible]

▼七時三十分 [illegible]

▼八時 라디오 [illegible]

十二月三日(火)

▼午前七時五十一分(東) 라디오 體操

▼午後零時五分(東、大) 合唱 (第九回合唱祭入賞團體) [illegible]

四、(가)[illegible](나)小人의[illegible]

▼三時十五分 [illegible]

▼六時 라디오世界一週[illegible]

▼六時二十五分 經濟解說

▼七時三十分 朝鮮民[illegible]

▼八時 [illegible]

▼八時三十分 바이올린獨奏 [illegible]

第一放送 (三日)

▲午前七時(東)英語講座 [illegible]

▲七時三十分(京)朝の修養 ▲九時 家庭メモ ▲十時三十分(東)家庭講座 [illegible]

▲六時(大)ラヂオアンピカンガ [illegible]

▲六時二十五分(東)[illegible] ▲六時五十五分(東)[illegible] ▲七時三十分(東)[illegible]

▲八時(東)講談 ▲八時四十五分(東)小唄 ▲九時(東)[illegible] 囘音樂コンクール入賞作品(四)新交響樂團 指揮山田耕筰

森永ミルク

먼동이틀때 (一一二)

李無影 作 鄭玄雄 畵

조고만新願 (3)

가 그것이 궁금했다。 오빠하구는 친한 사이니까 위문쯤 오는것이 그리 이상한 노릇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은 그만큼 만들어노코 무슨 염치로 찾어다니노 싶었다。

「참 경사롭습니다。」

여옥은 수영이를 아랫목으로 나려 앉치고 양미간을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었다。

「여옥씨。 그러케 말씀하시면 이쪽이 더 미안하지 안흘까요?」

「아이 참 왜 그러케 해석하실까……。」

수영이가 눈물겨움을 모르는것을 보니 여옥은 더 미안했다。

수영은 서에 갔던 이야기를 간단이 본다는 일도의 일을 여러가지로 걱정을 했다。 그러고 신문사 친구님 통해서 알아본 결과도 보고를 했다。 수영이가 알아본대로 하면 일도는 역시 당분간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수영이 또한 일도를 중심으로 어떤 조직체가 있는가 없는가가 틀어나지 안는이상 석방할리가 만무라는것을 시인하는것 같았다。

일도에 관한 이야기가 진섭되는 동안에 여옥이와 감정도 다소

「오빠 전에두 좀 그걸 염려했어요。 약혼을 멀석 못한것두 그때문였숴。 지금은 숙정이가 저러지만 네 두구봐라。 늘 이러케 말을 후회할게니까……」

하시기에 전 되려 오빠를 몹아세웠섯어요。 그랬드니、결국은 그때가 온겁니다。 숙정씨가 후회한다던 — 그때가요。」

「그러케 밖에 해석되지 안켓지요。」

수영이는 할말도 못하고 있다가、겨우 용기를 내어서、

「내 애길 듣는다면 여옥씨도 놀랄겁니다! 하고 사건의 전후 전말을 이야기 하엿다。

수영은 에야기를 끝내고、나더니 천천이 다시 이러케 주를 달앗다。

「그러나 운명이란 반듯이 절대적이아니지요。 인위적(人爲的)으로 그운명을 한번 뒤집을수도 잇을겁니다」

「운명을 뒤집는다니요?」

「숙정이도 그러케된줄을 모르고 인화군과 약혼은 햇지만 지금 와서는 후회하는것같고 나두 그것을 시인할수 없읍니다」

「네? 그러시다면?」

「결국 인화군과의 약혼은 해소가 되겟지요」

「네?」

여옥은 또한번 놀랏다。

「아가!」

「왜 그리 놀라십니까。」

「어떠케 이러케……」

「왜 이제야 오느냐 말슴이지요。」

허든 소리 비젓이 하기는 하면서도 수영의 표정은 침울 햇다。

「제가 찾아가 뵈어야 할것인데 이러케 찾아오시도록 해서……。」

「예요 여옥씨 단여 가시잔엇읍니까。」

반갑던 마음도 이 한마디에 때무든것다。 1러타면 1날밤 찾아갓을때 수영、인화、숙정 숙자、이러케 넷이 모여앉어서 놀다가 내가 온다니까 괴분을 깨지안키 위해서 공론을 하고 갓으러니 생각 되엇기 때문이엇다。

「어쨋든 들어 가시지요。」

하고 여옥은 앞서서 방으로 들어갓다。

여옥은 수영이가 뭣하러 왓는간 완화되엇다。

「그러고……」

하고 자리를 고처 앉는바람에 여옥이도 앉것을 바로잡앗다。

「이야기가 좀 바뀝니다만 이번 숙정이가 인화와 약혼하게 된것은 여옥씨는 어떠케 보고 계십니까。」

「여옥은 말뜻을 몰라 오두머니 처다보기만 햇다。

「숙정이가 인화군을 사랑해서 약혼한것이라고 생각 하시겟죠?」

「1야 이왕에 잇읍니까?」

「글은 1러시겟죠。」

「1야 때안된 노릇이겟죠 오빠가 늘 맛스러하시듯이 그때가 온게죠。」

「그때라니?」

「전 오빠를 조경해요!」

여옥은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잇섯다。

그런 말을 수영이가 이해할리는 만무했다。

正直한店員

【원산】 부내 [illegible] 중선옥(中田屋)상점점원 강상준(姜尙春)군은 지난二十七일오전 十一시경에 부내 경정 (京町) 무진회사앞을 지내다가 현금백여원이 든 지갑을 주어서 [illegible] 에 갖다 주엇다는데 일반은 그의 정직함을 칭찬하야 마지안는다고 한다。

검사의업회로 [illegible] 개월의 구형이 잇엇는데 언도공판은 오는六일경에 열릴것이라고한다。

[illegible] 에서 종사하야 [illegible] 으로 전괴 명조가 새로 강원도를 경유하야 [illegible] 광구를발견하야 소화八년八월 이래 [illegible] 에 六十七만여평의 선천의명의로 광업권의 등록을하야 만수선천의선비[illegible] 산군[illegible] 사수하게되엇는데 [illegible] 에게 [illegible] 一만원을받고 팔어버린것으로 [illegible] 지난 二十九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미천[illegible] 판사주심 대천[illegible] 검사입회로 [illegible]

기침에잘듯고먹기좋은약

百日咳……홍역

氣管支加答兒

咽喉炎……扁桃

腺炎……천식

밧튼기침……담

기침……폐염

호흡기병으로

인한담기침에

지밋션은 담·기침에잘들을뿐만아니라 맛이조홈으로 약을 실허하는 어린애라도잘먹게됨으로 더욱 유효하며 조곰도 극약성분이 석겨잇지안음으로 아무런 부작용의염려가업스니 아모리몸약한어린애의게도 될수잇습니다

조선에 만흔환자를가진 밧흔기침 맘는기침 로인들의 담·기침에사용하셔도 무슨약보다도 조선사람의처질에맛는만큼 제일잘듯는다고 칭찬을밧고 잇사오니 부작용과 습관성의염려가 전연업시 담을곳삭게하고 기침을 끈이게며 밤에잠을 잘 주무시게만듭니다

어느가정에도한병식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 잠재일때에……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증세의악화를방지하고 전쾌를앨으게합니다

チミツシン

지 맛 선

TY-K-27

三〇〇瓦…一圓八十錢

一五〇瓦…一圓

五〇瓦…四十錢

全國藥房에서 販賣합니다

發賣元 鍵田遠元三郎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ClibPDF - www.fastio.com